

한·EU FTA 체결 … 지역경제 명암은

## 기아차 쏘울·스포티지R 큰 기대 와인·위스키 몰려와 주류업계 긴장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자유 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자동차·가전·석유화학 등 대부분 제조업종의 대(對)EU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한·EU FTA로 교역량이 커지고 수출 인프라가 좋아져 자동차·가전·석유화학 등 광주·전남지역 주요 제조업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10%), TV 등 영상기기(14%), 석유·신발(최고 12~17%) 등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 관세철폐의 혜택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EU FTA의 최대 수혜업체는 자동차다. 특히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쏘울과 스포티지R이 유럽시장에서 인기가 높아 'FTA 효과'가 기대된다.

한·EU FTA가 7월 발효되면 국내 완성차업체의 수출 경쟁력이 높은 배기량 15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한 10% 수준의 관세가 5년 내에 사라진다. 1500cc 이상은 3년 내 철폐된다. 이를 통해 자동차 수출 가격이 10% 가량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난다. 특히 일본과 미국 등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경쟁국에 비해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게 된다는 평가다.

부품업체는 더욱 큰 수혜가 기대된다. 엔진과 변속기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에 적용되는 4.5% 관세는 FTA 발효 즉시 폐지된다.

반면 유럽산 수입차에 대한 관세도

동시에 사라져 수입차의 국내시장 점유율도 함께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4월 국내 수입차 판매량 가운데 유럽 차 비중은 78%에 유행했으며 올해 4월까지 누적량도 73%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현재 수입 차에 부가되는 8%대 관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돼 2016년 이후에는 완전히 사라진다. 이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는 7%를 넘어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특히 2억원 이상의 최고급 유럽차들은 2000만원까지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시장보다 유럽 시장이 규모면에서 약 12배 크다. 때문에 국내 자동차 관련업체가 FTA 발효에 따라 얻게 될 득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기계·전자 업종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EU는 우리나라 주요 가전 기기(TV 14%, 냉장고 1.9~2.5%, 에어컨 2.2~2.7%, 전자레인지 5% 등의 관세를 폐기하고 있다. 하지만 1997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반도체, 휴대폰, 컴퓨터 관련부품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직접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 소비자가 많이 찾는 유럽산 제품인 술과 명품, 의류의 관세가 소멸되거나 단계적으로 내려가면서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포도주(와인)는 현재 수입관세

15%가 발표 즉시 소멸돼 FTA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를 가장 많이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만원에 팔리는 프랑스산 무통깨는 3만4500원, 스페인산 토마토는 3만원에서 2만5800원 안팎으로 가격이 내릴 전망이다.

스카치위스키는 현재 관세 20%가 첫해부터 5%씩 3년에 걸쳐 없어진다. 밸런타인과 임페리얼, 원저, 스카치블루, 조니워커 등 국내에서 인기 있는 위스키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수입원가는 3만원인 위스키는 FTA 발효 직후 관세가 1500원 줄고 연쇄적으로 주제, 교육세, 부가가치세도 감소해 세금이 3194원 줄어 출고가가 그만큼 내려간다.

유통업체는 명품이나 SPA(기획·제조·유통 일괄화)형 브랜드 제품이 관세 철폐율보다 약간 낮은 비율인 의류와 신발 8~10%, 접착 5~7% 가량 값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접착화면가격이 5% 인하된다면 국내 여성 사이에 인기가 높은 샐러드가방제품인 클래식 캐비어 미디엄은 현재 570만원대에서 550만원대로, 루이비통 모노그램 에스트렐라 라지는 210만원대에서 200만원대로 내려가게 된다.

또 의류 판매가격이 8% 내려간다고 보면 13만9000원짜리 망고 여성 원피스는 12만8000원, 5만9000원짜리 H&M 셔츠는 5만4000원이 될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연합뉴스



기아차 “아빠하고 나하고”

어린이 날인 5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내 잔디광장에서 열린 놀이마당에서 기아차 직원들이 자녀들을 들어올리며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현대·기아차 美 점유율 10% 초읽기

### 4월 10만8828대 판매…9% 돌파 ‘고속주행’

현대기아차가 지난 4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처음으로 점유율 9% 넘어서며, 10% 돌파를 눈앞에 뒀다.

현대차미국법인(HMA)은 3일 (현지시간)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작년보다 40% 증가한 6만1천754

대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기아차미국법인(KMA)도 작년보다 56.7%가 증가한 4만7천74대를 판매하며, 시장 점유율은 지난 3월보다 0.9% 포인트 높아진 9.4%로 끌어올렸다. 현대기아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월 기준 9%를

넘어선 것은 미국시장 진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일본의 닛산자동차(7만1526대)를 크게 앞지르며, 미국 완성차업체 3사와 도요타, 혼다에 이어 판매순위도 7위에서 6위로 한 계단 뛰어올랐다. 차종 별로는 현대차의 경우 엘란트라가 작년보다 무려 129% 늘어난 2만2천100대 판매로 쇼나타의 판매량도 2만1천738대를 기록해 두 인기 차종의 월간판매량이 처음으로 모두 2만대를 넘어섰다. 또 기아차의 쏘렌토와 쏘울이 각각 사상 최대의 월간판매량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월간판매량이 1만대를 돌파했다.

/연합뉴스

## 광주, 아파트값 대비 전세비율 전국 최고

### 전국 평균 58.9%…광주는 무려 74.9%

광주가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 비율(이하 전세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4월 주택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전국 평균 58.9%로 2004년 11월(59.5%) 이후 6년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전세비율의 상승세는 2009년 2월 이후 26개월째 이어지는 것으로,

통상 전문가들이 전세수요가 매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세비율 60%' 대에 바짝 다가섰다.

특히 광주시는 전세비율이 74.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울산(72.9%), 경북(72.2%), 전북(71.8%), 대전(70.7%), 대구(70.5%), 제주(69.5%), 충북(68.5%), 부산·전남(67.9%) 등의 순이었다.

3월 이후 아파트 매매·전세값 상승

세가 누그러들었음에도 전세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은 매매보다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다는 방증이다. 실제 국민은행 조사 결과 연초대비 전국의 아파트 매매값은 3.7% 오른 반면 전셋값은 2배 가까운 6.1%가 상승했다. 지난달에도 매매값은 1.2% 올랐지만 전셋값은 1.6%로 상승폭이 더 컸다.

월세 계약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임대차 중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비중은 45.5%로 3월(44.8%)보다 증가했다.

전셋값이 큰 폭으로 오른 6개 광역시는 지난 3월부터 월세 비중이 전세 비중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6개 광역시는 지난 2월까지 전세 51.1%,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48.8%로 월세 비중이 50% 미만이었으나, 3월부터는 월세 비중이 51.3%, 4월은 50.6%로 전세보다 월세가 많아졌다.

지난달 기준 광주의 보증부 월세 비중은 61%, 대구는 51.5%나 됐다.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달보다 2.5% 크게 올랐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과 서구 화정동 일대 재건축 단지 이주로 전세율이 부족해지면서 매매 전환 수요가 증가하며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구는 지난달 1.8%에 이어 이달 2.9% 상승했다. 인근 광산구도 2.7% 올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건설·부동산 ‘나홀로’ 부진

### 지난해 대부분 업종 경영실적 호전

지난해 대부분 업종의 경영실적이 호전된 가운데 건설·부동산 업종만 ‘나홀로’ 부진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건설·부동산 업종은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현금흐름보상비율이 하락하고 차입금의존도는 높아지는 등 다른

업종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다.

기업의 영업활동에 의한 경영성과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09년 4.4%에서 2010년 2.8%로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다른 업종은 6.2%에서 7.5%로 상승했다.

또 현금수입으로 단기차입금과 이

## 태영부동산 재테크컨설팅

호남경매신문지사,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 (20년 경력)

근린시설

·서구 생활동 3층상가 대지 55평 건평 100평

감정가2억 6천만 최저가1억8천만

·광산구 비아동 3층상가 대지73평 건평131평

농가시설

·나주시 금천면 고수원 토지 1,530평

감정가1억8천 최저가1억3천만

단독주택

·서구 벽진동 대지 143평 건평 57평

감정가1억4천만 최저가9천9백만

전원주택

·화순군 능주면 대지 135평 건평 56평

2층주택 최저가6천5백만

근린주택

·곡성군 곡성읍 2층상가주택 대지31평

건평62평 감정가1억3천만 최저가8천9백만

다가구

·서구 풍암동 3층다기구 대지 61평

건평 112평 감정가3억3천만 최저가2억3천만

광주 서구 미륵동 도시철도공사 부근

##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LH공사광주남지사별 유지빌링 501

### 전원주택지 금매

남구 대자동(대촌부근) 일반주거지역, 마을내 나대지

886㎡(268평) 매매가 9800만원,(3.3㎡당 365,000원),

### 소촌공단내 공장매매 및 임대.

●광산구 소촌동 소촌공단내 공장용지2,486.5㎡(752평),

공장1,120㎡(338평), 매매가 11억3,000만원, 임대시

보증금 5,000만원 월500만원.

●광산구 소촌동 소촌공단내 공장용지 660㎡(200평),

공장264㎡(80평), 매매가 3억.

### 화순도곡 전원주택지

●화순군 도곡면 혼산리 도곡면소재지부근.

6,745㎡(2,040평), 관리지역, 현재임야, 2차선 포장도로

로 접함. 매매가 3.3㎡당 16만원.

### 자연녹지

●서구 매월동 서광주택 앞 2,590㎡(783평),

3.3㎡당 98만원.

●광산구 산월동 보훈병원앞 9,722㎡(2,941평) 3.3㎡당

58만원, 자연녹지지역, 분할가능.

●서구 화정동 3층 대지63평 건평105평

감정가3억2천만 최저가2억2천만

### 무등산 전원주택지

●북구 회암동 대지433㎡(131평), 전.임1,994㎡(603평)

구 주택2층, 매매가 196,000만원, 조망 경관양호.

### 상무지구 나대지(업무용지)

●상무지구 시청앞 부근 20m 도로접한 993㎡(300평),

매매가 18억, 회사사옥, 업무용빌딩.